

## ASEAN 주요국 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 악화

- ASEAN은 유망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아왔으나 최근 주요국들의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현지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ASEAN 주요 국가들의 급격한 임금인상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포퓰리즘 (Populism) 정책에 의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음.
  -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o 태국은 2011년 잉락 총리의 총선 공약인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 공약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수도권 6개주에 최저임금 300바트가 시행되었고 지방의 최저임금도 1년의 기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sup>1)</sup>
    - o 말레이시아는 여권의 총선승리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월 800링깃 (265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회에서 논의 중임.
    - o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1년 12월에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약 20% 인상한 바 있으며, 베트남 또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2012년 5월에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26.5% 인상하기로 했으며 10월 이전에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도 예상됨.<sup>2)</sup>
- 이러한 ASEAN 주요국의 임금 인상으로 ASEAN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
  - 동아시아 역내 노동집약산업의 마지막 투자처로 최빈개도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로의 이전 시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물론 최근 개발붐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예상됨.
  - 특히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이전한 기업들의 경우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추가로 이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봉착하기 이전에 생산성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함.

(이재호 전문연구원)

1) 현재 태국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 170~220바트/일 수준임. 최저임금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3년 4월에 300바트로 일괄 인상될 경우 임금부담이 최대 4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음.

2) 2012년 1월 예정이었던 베트남의 민간부문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과 노동계의 요구로 2011년 10월에 미리 시행함. 농촌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140만동(68달러)으로 27.2% 인상되었으며, 도시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190만동(92달러)으로 40.7% 상승함. 2012년 임금인상을 2개월 앞서 시행했기 때문에 2013년 임금인상도 10월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